

경제지리학의 패러다임변화와 신경경제지리학

박삼옥*

요약: 본 논문에서는 경제지리학의 발달과정에서 패러다임변화와 최근에 논의되는 신경경제지리학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경제학에서는 공간을 경제이론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신경경제지리학 논의가 활발하였고, 경제지리학에서는 “문화적 전환”의 흐름 속에서 제도주의적 접근과 진화론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적 틀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신경경제지리학 연구가 활발하였다. 경제지리학계에서 혁신, 환경, 문화, 서비스, 페미니스트, 노동시장 등 다양한 주제를 신경경제지리학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지리학과 지역학, 경제학 등 다른 사회과학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 신경경제공간을 이해하는 이론과 방법론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신경경제지리학, 패러다임변화, 문화적 전환, 제도주의적 접근, 진화론적 접근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문화가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다양하게 구성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이 대서양 연안지역에서 태평양 연안지역으로 이동하였는가 하면(Park, 1997), 세계 각 지역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풍요의 지역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은 경제활동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경제공간의 역동적인 변화와 더불어 최근 경제지리학의 연구는 경제공간의 변화 못지않게 연구의 방법론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급자족의 농경문화시대에는 한 지역 내에서 자

원과 인력 및 동력이 동원되고 지역간의 이동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산업화시대에는 지역간에 자원과 인력의 이동이 활발하고 대규모의 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화시대에는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간의 산업별 특화가 이루어지고 지역간의 다양성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특정지역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하여 대도시를 형성하는 한편 도시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 등 지역별 변화가 크게 이루어진다. 산업화단계를 넘어서 지식정보사회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중요하게 되고, 물자와 인력 및 동력의 이동은 더욱 활발하게 되며, 형식적 지식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띠게 된다. 유동이 자유롭게 되어 국가내의 각 지역은 물론 세계의 각 지역이 서로 연계되어 소위 세계화가 진전되고 세계의 경제공간이 서로 연결되게 된다. 지식정보사회에 한편으로는 일반화된 지식을 세계 어디에서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쉽게 접하게 되지만,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특정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고도의 지식산업과 서비스가 특정지역에 집중하게 되면서 경제공간은 더욱 복잡하게 되고 역동성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제활동은 지역간에 차별화되는 경제공간을 이해하는 이론과 분석하는 방법을 새롭게 하고 경제공간을 조직하는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켜 왔다. 삶의 터전인 공간에 전개되는 경제활동의 입지와 조직 및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지리학의 중심 주제라면,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경제공간상에 전개되는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이론적 사고와 접근방법은 지속적으로 변하여 왔다. 특정 경제활동이 왜 특정 장소에 입지하였으며,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자나 정보 및 인력이 어디에서 투입되고, 어떤 방법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며, 완성된 제품은 어디에 공급되는가 하는 질문은 경제지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제기된 근본적인 질문들이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경제지리학에서 던지는 질문과 주제는 오늘날에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변화과정을 탐색하는 내용과 방법은 사뭇 변화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제공간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리학에 대한 재평가 또는 재발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신경경제공간 또는 신경경제지리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지리학의 발달과정에서 경제공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오늘날 중시되는 경제지리학의 연구방향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논의되고 있는 신경경제지리학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그 내용은 어떠한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경제지리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가 방대하고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 (Le Heron and Harrington, 2005; Sheppard and Barnes, 2003;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003(2); 2007(5) 참조). 따라서 여기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

고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제지리학의 발명과 제도화

경제활동의 입지 특히 상업정보에 대한 관심은 17세기부터 고조되었지만 경제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한 경제지리학의 학문적 발달의 역사는 별로 길지 않다. 17세기 이후 서부유럽 국가들이 교역을 확대하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자원 및 상품교역관련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업지리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경제지리학의 뿌리는 이러한 상업지리학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지리학의 기초가 되는 상업활동 공간과 지역의 상업정보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경제지리학이 대학중심의 학문으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경부터였다.

Johann von Thünen이 1826년에 출판한 *The Isolate State*는 최초의 경제지리학 고전 논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지리학의 발명과 제도화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Chisholm이 1889년에 출판한 *Handbook of Commercial Geography*는 경제지리학의 발명에 큰 공헌을 하였다. Chisholm은 세계의 상품의 생산과 교역의 조건, 경제활동의 집중과 분산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함으로써 경제지리학의 기초가 되는 “생산의 지역(regions of produc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명하였다 (박삼욱, 1999; Sheppard and Barnes, 2003).

또한 1882년에 독일지리학자 Götze가 “경제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상업지리학과 경제지리학을 구분한 점; 1893년 Cornell 대학과 Pennsylvania 대학에서 최초로 경제지리학 강좌가 개설된 것; 1925년에 학술지 *Economic Geography*가 Clark 대학에서 처음으로 창간된 것 등은 경제지리학

이 학문으로서 제도화하는데 공헌하는 계기가 되었다 (Sheppard and Barnes, 2003). 이와 같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경제지리학은 새로운 학문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여러 대학에서 경제지리학 강좌가 개설되고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됨에 따라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다.

Chisholm의 저서는 단순히 경제지리학 교과서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집중과 분산, 생산의 지역, 상업공간(commercial space) 등 새로운 개념의 개발과 지도화,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공헌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한 이들 저서는 영국의 세계적 교역체계, 제국주의의 상업적 팽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지리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지리학의 발명과 제도화는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상업적 정보의 체계화와 관련이 있었는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환경결정론의 영향을 받아 경제지리학의 이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J. Russell Smith는 Chisholm의 상업적 정보의 기술적인(descriptive) 내용에 더하여, 자연환경이 인간의 경제활동과 자원이용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분석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에 1913년에 *Industrial and Commercial Geography*를 출판하여 경제지리학의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하게 하였다.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역과 상업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Chisholm과 유사하지만, Smith는 기후에 근거한 문명수준과 동력자원의 분포 등이 경제활동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이것은 환경 결정론적 사고를 강조한 Ellsworth Huntington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Berry, Conkling and Ray, 1993).

3. 지역적 차이(regional differentiation), 계량혁명과 공간과학

경제지리학이 제도화된 이후 1950년대까지 경제지리학은 경제활동공간을 환경결정론과 관련하여 설명하려는 이론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지역적인 차이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다시금 이론적인 접근에서 기술적인 접근으로 회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지역, 지역적 관점, 지역적 차이 등이 중심 주제였으며 지역간의 차이를 서술하는 것이 경제지리학 연구의 주된 방법론이었다. 1935년에 출판한 Clarence F. Jones의 교과서 *Economic Geography*는 지역간의 차이를 강조한 경제지리학 교과서의 전형이었다. 후에 1965년에 Gordon G. Darkenwald와 함께 출판한 *Economic Geography*에서도 2차 세계대전의 영향과 전후 재건 및 기술진보의 영향을 다루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를 기술하는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Jones and Darkenwald, 1965). 이 당시에 경제지리학은 재화의 생산과 교환 및 소비와 관련하여 지표공간에 나타나는 지역적인 차이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제지리학에서 지역적 차이와 경제지역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게 된 것은 Hartshorne(1939)의 *The Nature of Geography*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Hartshorne은 지역의 독특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경제지리학에서 법칙을 추구할 수는 없으며 예측하는 과학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Hartshorne은 지리학이 법칙추구보다는 지역의 독특성을 설명하고 서술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경제지리학에서 지역을 중시하고 경제지역(economic region)을 구분하며 지역간의 경제활동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의 방법론을 제공한 셈이다.

1940년대에 들어서 경제지리학의 연구는 지역중심에서 산업 또는 주제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지리학은 지역적인 차이를 밝히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 추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점화시킨 것은 1940년에 출판한 Harold McCarty의 *The Geographic Basis of American Economic Life*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을 통합적인 단위로 보고 그 자체를 연구한

Hartshorne과는 달리 McCarty는 시장에 작동하는 힘 (market forces)이 경제지리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고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개념의 논리를 중시하였다. 그는 경제지리학은 개념을 주로 경제학에서 도입하고 방법론을 주로 지리학에서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McCarty, 1940; Barnes, 2001에서 재인용).

경제지리학에서 이론을 중시하는 과학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Hartshorne을 비판한 Schaefer(1953)의 “Exceptionalism in geography”는 경제지리학 연구가 지역적 차이를 중시하는 경향에서 법칙추구적인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뼈기를 박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이후 경제지리학은 젊은 경제지리학자들에 의해서 공간과학(spatial science) 또는 과학으로서의 학문에 대한 재발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Walter Isard가 1956년에 *Location and Space Economy*를 출판하고 지역학(regional science)을 창시함에 따라 많은 젊은 경제지리학자들이 과학적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계량분석을 중시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컴퓨터의 보급으로 경제지리학 연구에서 계량분석은 더욱 확산되었으며 급기야 1963년에 “계량혁명”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논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칙추구적이고 수학적 이론화의 물결이 확산됨에 따라 경제지리학자들은 von Thünen, Weber, Christaller, Lösch 등의 경제활동에 관한 고전적인 입지이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전이론을 재발견하여 신고전이론을 전개한 David Smith의 저서 *Industrial Location* (1971)은 이론경제지리학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960년대의 경제지리학은 입지이론을 중시하여 지역적 차이에 기초한 이전의 경제지리학으로부터 일대 전환을 하였다고 본다. 이 시기의 경제지리학은 공간과학으로서 이론지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경제지리학은 이론경제지리학의 틀 속에서 논리실증주의적인 접근방법이 중요하였지만 다양한 접근방법이 소개되었다. 즉, 공간과학으로서

의 이론경제지리학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을 전제로 합리적으로 조직되는 경제공간을 다루었기 때문에 현실의 복잡 다양한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제인, 이윤극대화의 개념을 전제로 한 경제지리학연구의 반작용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소개되었다. 예를 들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을 가정하기 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족자의 행태를 강조한 행태주의적인 접근이 도입되었는가하면, 개인의 실생활에서 경험을 중시한 현상학적 접근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Harvey(1982)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공간의 불균형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구조재편을 강조한 다양한 연구를 행하여 경제지리학의 지평을 넓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소개되는 가운데 신고전적인 접근방법과 논리실증주의적인 접근도 상당히 유지되어서 경제지리학연구 방법론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큰 변화를 예상하게 하였다 (박삼욱, 1999).

4. 경제지리학의 부활

1980년대까지 경제지리학의 다양한 방법론이 소개되고 경제지리학 내부에서 상당한 논쟁이 지속되었으나 다른 학문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감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경제지리학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 경제지리학은 경제학, 물리학 등 타학문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아이디어를 빌려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경제지리학은 다른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지리학이 다른 사회과학 분야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배경은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진전된 정보화는 세계화를 촉진하였으며, 세계화는 그 자체가

특성상 경제지리학의 현상이다. 유동의 공간, 생산과 관리 통제의 장소 등의 전통적인 경제지리학의 아이디어는 세계화 이해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등이 경제지리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Paul Krugman이다. Krugman(1991)은 그의 저서 *Geography and Trade*에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지리학에 관하여 생각하고 저술하는데 나의 전 학문적 생활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의 경제지리학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나타냈다. 1900년대 이전에 경제지리학이 국가간의 교역과 서구국가들의 시장확대에 중요한 학문분야로 발명된 이후, 이제 다시금 경제지리학이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학문분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부활은 경제지리학이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헌의 중심에 서게 하였고, 이는 경제지리학 외부환경에서 비롯되기도 하였고 경제지리학 내부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1) 외부환경의 변화

1980년대 이후 첨단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통신혁명을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지구촌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다 (Hayter, 1997). 세계경제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변화는 여러 방면에서 인식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형식적 지식(codified knowledge)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였고 지식과 정보전달에서 시·공 수렴현상이 현저하였다. 이 때문에 거리영향의 사멸(death of distance), 지리학의 종말(end of geography)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학자와 사람들은 공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경제지리학 연구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공간적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경제지리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공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세계화의 진전은 경제지리학적인 사고와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킨 한편 세계화 자체가 경제지리학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세계화는 물론 오늘의 산물이 아니고 이미 인류의 역사는 세계화의 역사라고 할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부터 세계화가 강조된 것은 그 정도와 범위가 과거에 비하여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분공장의 세계적 확대를 통한 생산활동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세계적 이동, 금융자본의 이동,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고차서비스의 세계적 연계와 확산, 고급인력의 세계적 이동 등 그 내용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Alvstam and Schamp, 2005). 이러한 세계적 이동은 태평양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태평양 연안지역의 경제공간이 바뀌고 있다 (Park, 1997; 2003). 이러한 세계적 유동의 확대 현상은 바로 경제지리학 부활을 촉진하였다.

셋째, 지식기반경제의 발달은 세계의 경제공간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켰고 경제지리학 부활에 불을 붙였다.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은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 국가와 여러 지역들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정책과 혁신체계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지식의 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혁신체계의 구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면서 지역에서의 혁신체계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Braczyk, Cooke, and Heidenreich, 1998). 이에 따라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고 이는 바로 경제지리학의 중심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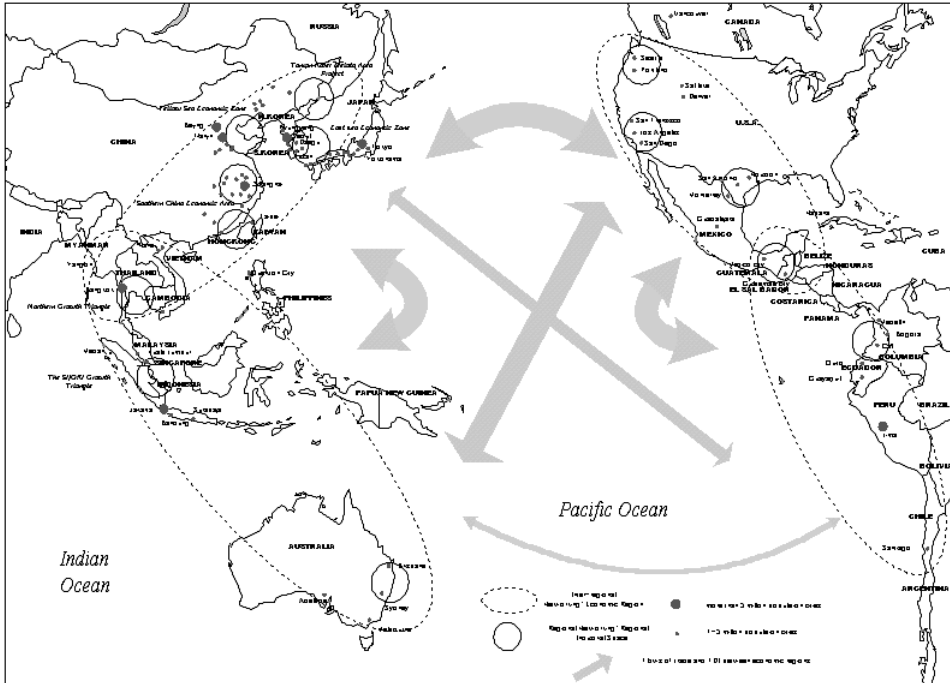


그림 . 경제공간변화의 사례: 태평양 연안지역의 경제공간

출처: Park, 1997

간의 협력의 강화를 통한 학습지역의 조성이나 혁신 클러스터의 육성 전략은 경제지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와의 교류를 통하여 경제지리학의 개념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선진국에서 지식기반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탈공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의 진전은 국가간은 물론 지역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경제지리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과거에 생산조직 내에서 서비스 기능이 내부적으로 작동하던 것에서 이제 많은 서비스 기능이 외부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활동은 다양한 서비스기능의 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그림의 하단부분의 연계만 중시하였으나 이제 대부분의 생산자서비스 기능이 외부화됨에 따라 그림 상단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의 연계가 중요하게 되었고 이는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에 수많은 새로운 기업의 신설

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다양한 서비스 지식이 생산의 전 과정에 상호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산업 간에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서 기업간 네트워크와 공간연계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고, 이는 경제지리학 연구의 주제를 더욱 풍부롭게 할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새롭게 하였다.

이외에도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의 여성화, 산업 구조 재편 등은 경제지리학의 지평을 넓히고 경제지리학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삼옥 외, 2007).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간(space)과 장소(place)는 변화과정의 진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지리학의 재발견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경제지리학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조직의 다양한 기능을 입지시키는 데 지리적 차별화를 피하는 것은 바로 경제지리학의 개념에서 비롯되었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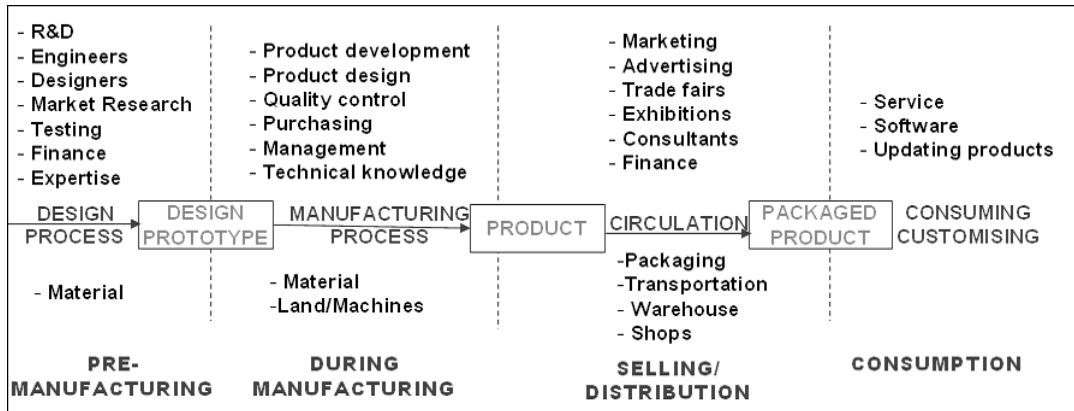


그림 . 생산과정에서 서비스기능의 연계

출처: Bryson, Daniels and Warf, 2004를 수정.

문이다.

2) 경제지리학 내부로부터의 변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와 관련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1990년대 이후 경제지리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정치경제는 단선적인 것이 아니고 복합적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정치경제를 통하여 새로운 접근, 새로운 이론, 새로운 가능성의 출현을 기대하게 하였다.

정치경제는 학문연구의 한 전통으로, 18세기부터 시작했지만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19세기 Marx의 자본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Marx는 경제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보다 넓은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es)의 일부로 이해하려 하였다. 이러한 기본 관점을 공유하면서 정치경제학자들과 경제지리학자들은 두가지 핵심적인 의문: “사회(social)”인 것에 대한 정의와 사회와 경제사이의 연결의 성격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였다 (Sheppard and Barnes, 2003). 여기에서 Sheppard and Barnes(2003)가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한 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Marx는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다. 즉, “social”은 계급(class)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적대적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계급은 경제에 기능적 관계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Harvey(1982)는 *Limits to Capital*에서 사회적 과정과 경제에 사회적 과정의 연결에 대한 Marx의 관점을 지리학적으로 전환하여 경제공간을 Marx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Harvey는 그 후로 여러 연구를 통하여 경제공간의 불평등성을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경제지리학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여러 경제지리학자들은 정치경제의 다른 전통으로부터 경제공간을 이해하는 대안적 접근을 개발하였다. 이들 대안적 접근은 “사회(social)”에 대한 정의와 사회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에 상당히 다른 대답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Dorren Massey는 1984년에 *Spatial Division of Labor*에서 “사회(social)”에 대한 정의와 사회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이해하려 하였다. Massey(1984)는 장소 자체가 경제발전을 일부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사회적 과정을 계급으로 보지 않고 사회와 경제의 중간으로 보았다. 또한 Tickell and Peck(1992)은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의”를 Marx의 단순한 기능주의에서 벗어나 제도적 규제적 틀로 정의하려 하였다. 정치경제학의 또 다른 접근에서는 사회적 과정과 경제와의 관계를 공간과 장소가 어떻게 결정하는 가를 수학적 논리와 엄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려 하였다 (Sheppard and Barnes, 1990; Webber and Rigby, 1997).

최근에는 경제지리학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들이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소위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지리적 전환(geographical turn)”,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이라는 용어가 소개되면서 “~ 전환”이 마치 유행어처럼 되고 있다. 보다 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문화적 전환”은 “사회의”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을 확대하고 Marx의 기능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이다. 소위 탈 마르크스주의, 제도주의, 경제사회학, 여성주의 이론 등을 종합하여 “문화적 전환”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다 (Sheppard and Barnes, 2003). 이들은 Marx의 기능주의에서 벗어나 착근성(embeddedness), 문화적 실행(cultural performance)등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Harvey의 정치경제학적 개념의 소개 이후 정치경제의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공간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경제지리학 연구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러한 지리학 내부에서의 변화가 경제지리학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이론정립을 위한 바탕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지리학이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와 소통하고 관심을 끌어내어 경제지리학의 부활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최근 경제지리학의 부활이 논의되면서 소위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이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5. 신경경제지리학 (New Economic Geography)

1990년대 이후 경제지리학 내부와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비롯된 경제지리학의 재발견은 “신경제지리학”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고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 경제지리학과 경제학에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로 연결된다. 1960년대 이후 경제지리학 연구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논리실증주의적인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한 정치경제적 접근은 세계경제와 사회의 큰 변화라는 경제지리학 학문외부의 요소와 결합하여 “신경제지리학”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킨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용어의 등장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법과 이론을 정립하여 경제지리학의 부활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경경제지리학은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에서 주장하는 두개의 큰 흐름이 있다. 즉, 앞에서 논의된 경제지리학 내부와 외부의 변화에서 비롯된 신경경제지리학의 등장은 경제학에서 공간분석을 주류경제학의 균형 모형에 도입하기 위하여 출현한 신경경제지리학 또는 지리적 경제학(geographical economics)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Fujita, et al., 1999; Krugman, 1998; 2000; Martin, 1999). Paul Krugman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제학에서의 신경경제지리학 논의는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적을 경제적 변수를 기준으로 수학적 모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론 경제학에서의 이와 같은 집적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새로운 “지리적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Scott, 2004).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제지리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신경경제지리학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다양한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에서 비롯된 문화적 전환, 사회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착근성, 변화과정 등이다. Yeung(2003: 445)은 신경경제지리학은 변화 과정을 밝히는 방법론적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 행위의 사회적 착근성에 대한 이해, 사회 주체들의 성격과 위상 변화의 묘사, 경제행위를 규정하는 물질적 담론적 요인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에서 신경경제지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경제지리학 외부의 요

인과 관련한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즉, 신경경제지리학 등장의 배경에는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세계화와 경제공간 변화, 서비스세계, 그리고 최근의 인구고령화 등의 세계적인 변화 또는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학에서의 신경경제지리학 논의를 소개하고 최근에 경제지리학에서의 신경경제지리학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학에서의 신경경제지리학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공간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공간을 다루는 기존의 고전임지이론이나 국제무역이론은 상당한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으며 그 선봉에 선 학자가 바로 Paul Krugman이었다. 신경경제지리학에서는 경제활동이 공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주체들의 미시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경제활동의 집중과 분산에 대한 경제적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Krugman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의 이와 같은 신경경제지리학은 지리학자가 아닌 경제학자에 의한 창조적인 상상력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되기도 한다 (Fingleton, 2007).

1990년대 신경경제지리학이 논의 된 이후 많은 경제학자 및 지역학자들에 의해서 신경경제지리학적인 접근에 의한 경제공간의 이론적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공간이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서 이들 내용을 검토하기보다는 Krugman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전개된 신경경제지리학의 의의와 시사점 및 한계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Krugman, 1998; 2000).

신경경제지리학 연구에서는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독점적 경쟁시장 또는 불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였으며, 운송비용, 가격메커니즘, 우연성과 경로의존성을 중시하고 수리적인 모형을 도구로 이용하였다. 분산과 집적 또는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의 형성원리를 토대로 산업의 집적을 비롯한 복잡한 경

제활동의 공간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무역과 장소와의 상호작용, 산업집적에서 수확체증과 외부효과, 지역발전의 경로의존성과 고착효과(lock-in effect) 등을 고려하여 경제공간을 이해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전·후방 연계, 시장규모효과, 운송비 등을 분석하고 생물학 등 자연과학의 이론과 개념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Krugman의 지리경제학 또는 신경경제지리학은 경제학의 도구를 통해서 현대경제활동의 지리적 현상, 특히 무역과 산업집적을 설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고전임지이론이 갖는 단순성과 현실과 괴리된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여 공간의 연속성과 복잡성을 반영하는 모형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과거에 경제학에서 무역과 집적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었으나 신경경제지리학에서는 국가내의 지역적 차원에서 외부효과를 강조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더불어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의 신경경제지리학이 이와 같이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지리학자들의 비판은 만만치 않았다. 특히 영국 Cambridge 대학의 Martin(1999)의 지리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The Economist*(March 11, 1999)에 소개되어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Martin and Sunley(1996)는 경제학에서의 신경경제지리학의 접근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수확체증과 외부효과를 통하여 특정지역에서의 산업집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포디즘에서 유연적 생산체계로의 변화과정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론의 바탕이 되는 마셜의 외부효과 중 모형화가 가능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역발전의 경로의존성을 밝히고 역사적 관점에서 그 과정을 이해하려 한 점은 중요하지만, 지역의 제도, 사회, 문화 구조와 지역 산업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지역의 특수한 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과 관련한 노동시장과 같은 일부 제한된 요인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제학에서의 신경지리학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비판은 비판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학제간의 지속적인 토론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에 경제지리학자와 경제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Clark, Feldman and Gertler, 2000)를 편집한 것이나, 2001년에 경제학자와 경제지리학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를 창간한 것은 바로 그 좋은 예이다.

2) 지리학에서의 신경지리학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지리학에서 신경지리학은 학문 내부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세계화, 지식정보화, 서비스 세계 등 학문외부의 사회·문화·경제 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지리학에서 신경지리학은 1960년대 지리학계의 일대 변화를 이끌었던 계량혁명의 파동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인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Barnes(2001)는 계량혁명이 인식론적 이론화라면 신경지리학은 해석학적 이론화로서 이는 이론적 원천에서 폭 넓고 정해진 답이 없는 연구의 해석적 양식으로 특징된다고 보았다. Barnes(2001)는 이러한 해석학적 이론화로 볼 수 있는 신경지리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이론화는 사회적 관심사, 위치, 흥미, 구체화,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둘째, 신경지리학의 이론은 과거 이론지리학보다 덜 형식화되고 유연하다고 본다. 셋째, 계량혁명에서는 수학이나 물리학 등 다양한 이론적 원천을 이용하였지만 이들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광범위한 사회과학 특히 경제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이론화한다. 넷째, 이론은 항상 진보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론적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고 결정적이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론은 인식론적 이론이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해석학의 반근원주의(antifoundationalism)의 특징이 있다. 요약하면 신경지리학은 이론적으로 지리학, 경제학, 문화연구, 사회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의 경계점에 있으며 다양한 학제간 연계를 통하여 보다 다원적이고 개방적이며 유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Barnes, 2001).

문화적 전환과 관련한 이러한 신경지리학은 경제학에서 논의된 신경지리학과 상당히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를 이루는 관점은 양 학문의 교류를 통하여 신경지리학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학과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지리학에서의 신경지리학은 경제학에서의 신경지리학과 차별화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여기에서는 최근 들어서 “문화적 전환”을 출발점으로 하여 경제지리학에 새로운 이론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접근과 진화론적 접근에서 각각 비롯된 제도경제지리학과 진화경제지리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에 이러한 경제지리학의 새로운 이론화의 전환과 더불어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요 주제를 소개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모든 접근방법이나 주제를 소개할 수는 없고 다만 필자의 소견으로 앞으로 경제지리학 연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제학은 물론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두가지 이론적 전환과 몇 개의 연구주제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적 전환과 관련하여 제도주의적인 접근을 통한 제도경제지리학(Institutional Economic Geography) 연구이다. 이는 경제지리학 연구에서 “제도적 전환(institutional tur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경제지리학의 이론적 기반을 넓히는데 공헌하였다. 경제활동이 전개되는 공간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무시하고는 경제경관의 형태와 변화를 밝힐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도경제지리학의 핵심이다. 경제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접근은 프랑스의 규제학과,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제도주의 발전,

유연적 생산체계의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받았다. 경제지리학의 제도적 접근에서 “제도(institutions)”는 경제지리학의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최근에 경제지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도(institution), 제도적 조밀성(institutional thickness), 사회적 착근(social embeddedness),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은 이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지리학 연구의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Martin, 2003).

이러한 경제지리학의 제도적 접근에서는 모든 경제적 행위가 사회, 정치, 문화적 요소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과거 신고전적 경제지리학 이론에서 사회, 정치, 문화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인 경제행위를 전제로 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 즉, 제도경제지리학에서는 경제활동을 경제주체의 독립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고, 보다 폭넓은 사회구조, 경제, 및 정치적인 규정과 전통 등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제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은 “지리적으로 불균등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과정이 그 과정들이 발생하는 제도적 구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고려되는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Martin, 2003: 79). 이는 제도주의적인 접근에서는 공간에서 경제적 행위의 차이를 제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조직관행이나 기업문화의 차이, 지역간에 법적 토대, 비공식적 규칙, 정책, 규범 등의 차이가 지역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Martin(2003)은 제도경제지리학의 주요 주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공간경제를 형성하는데 다른 종류의 제도의 역할; 경제경관의 진화-경로의존; 지역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기술혁신의 역할; 공간경제의 문화적 과정과 기반; 지역경제의 사회적 규제와 거버넌스 등이다. 여기에서 경제경관의 진화의 주제를 포함시킨 것은 진화적 접근을 제도경제지리학에 포함시킨 것이지만, 최근에 진화경제지리학의 발전을 고려할 때 제도경제지리학과 구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진화경제지리학(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에 대한 연구다. 소위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은 경제지리학에서 진화론적 접근을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Bathelt and Glückler, 2005; Glückler, 2007). 진화경제학은 조직의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리성과 루틴화된 행위에 기반을 두어 발전하였으며, 진화경제지리학은 진화경제학의 핵심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의 집적과 지역성장 격차를 설명하고자 한다(Boschma and Frenken, 2006). 예를 들면,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적을 신고전주의의 합리적 입지결정이나 제도학파의 특정지역의 제도로 보는 것과는 달리, 조직적 루틴에 내포된 지식의 공간적 집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경제지리학에서는 경제주체의 행위를 지역의 거시적 제도와 연관시키는데 비하여 진화경제지리학에서는 조직의 미시적 루틴을 중시한다.

기업간 네트워크 연구를 진화론적 접근으로 본다면 네트워크의 선택(selection), 유지(retention), 변이(variation)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가 경로의존(path-dependent)의 특성을 띠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변이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로파괴(path-destruction)의 특성을 갖게 된다. 이는 네트워크의 공간적 진화를 가져오는 진화론적 과정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진화경제지리학은 방법론에서 모델링을 중시하여서 통계적 검증이나 모델링을 회의적으로 보는 제도경제지리학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인식적 이론화(appreciative theorizing)를 통하여 사례연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신고전적인 접근과는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경제지리학에서의 진화적 접근은 제도경제지리학의 관점과 신고전주의적 관점을 접목시켰다고 볼 수 있다(Boschma and Frenken, 2006).

진화경제지리학은 기업 단위(firm-level), 네트워크 단위(기업간 관계), 지역 단위(공간조직) 등의 다양한

스케일에서 상호 연계된 공간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로써 기업입지, 산업과 네트워크의 공간발전, 분산과 집중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과 설명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제지리학의 진화론적 사고는 특정지역에서 국지적인 공동학습(collective learning)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고 새로 등장한 산업의 공간적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지리학에서 진화론적 접근은 아직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룰 정도로 이론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앞으로 다른 사회과학자들과 더불어 경제공간의 발전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과 방향을 제공하는데 크게 공헌하리라 본다 (Boschma and Martin, 2007).

셋째, 제도주의적인 접근과 진화론적 접근을 활용하여 세계경제공간의 변화와 그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새로운 주제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혁신의 지리학(Geography of Innovation), 문화경제지리학(Cultural Economic Geography), 환경경제지리학(Environmental Economic Geography), 서비스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 of Services), 금융지리학(Financial Geography) 등이 그 예이다.

혁신의 지리학에서는 공동학습, 네트워크, 착근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혁신이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적인 과제를 다루었다. 경제주체들의 공동학습과 학습 지역의 형성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네트워크 분석이 도입되기도 한다 (이정협 외, 2006; 구양미, 2008).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정책적 연구도 바로 신경경제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한 신경지리학의 일환이라고 본다 (Park, 2005; Le Heron and Harrington, 2005).

문화경제지리학에서는 문화를 경제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보고 현대자본주의 생산체계를 연구한다. 생산체계를 단순히 기업간의 물자연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상징의 가공, 사업서비스, 문화서비스 등의 연계와 이로 인한 경제공간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공간집적과 분산을 기업중심에서 인력

중심의 프로젝트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발전을 중시한다. 이 때문에 문화경제지리학적 접근에서는 장소, 문화, 경제는 공생적 관계로 발전한다고 보고 도시와 지역의 역사, 장소적 특성과 경제주체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와 지역의 사회·문화 경제 발전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중시한다.

환경경제지리학에서는 경제공간에서 경제적 과정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사회적 과정을 중시한다. 이는 기업운영에서 환경과 자원의 가치가 증대되고 경제활동의 에너지효율과 환경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진데서 비롯된다.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의 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Hayter and Le Heron, 2002).

서비스 세계의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산업지리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형성과 공간집적 및 변화에서 사회·문화적 특성과 장소-기업-문화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탈포디즘 시대의 FTA, 경제블록화 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국제 공간분업과 가치사슬 특성 연구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특히 서비스산업과 공공정책, 글로벌-국가 수준의 서비스산업과 국지적 서비스산업성장의 연계 등은 경제공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과 연관이 있지만 최근에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금융지리학(Financial Geography)의 발전이다. 이는 금융의 세계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에 지리학자와 사회과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은 물질적인 것처럼 유형의(tangible) 것이 아니고 무형의(intangible) 것이기 때문에 흔히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금융경관은 동질적인 것으로 여긴다 (Laulajainen, 2003). 그러나 금융경관 또는 금융공간은 동질적이지 아니라 지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금융현상은 다분히 지리학적이다. 금융현상의 공간적 차별성, 공간과정,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등은 금융을 보는 지리학적인 시각이며 이러한 지리학적인 시각이 세계경제공

간속에서 국제금융을 이해하는 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신경경제지리학의 새로운 접근은 페미니스트 경제지리학(Feminist Economic Geography), 노동시장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 of Labor Market), 정책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 of Policy)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는 경제지리학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이 다양한 주제에 적용되고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경제지리학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제지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한 이후 그 발달과정에서 경제공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최근에 논의되는 신경경제지리학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주제는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논의되고 있는 신경경제지리학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그 내용은 어떠한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경제지리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가 방대하고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경제지리학의 발전은 이론과 경험적 사고 사이의 순환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하면서 이루어졌다. 공간과 경제활동의 입지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공간은 경제의 불균형 분포와 차이를 만드는 전략적 자원이며 사회적·정치적 행동의 매개체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경제지리학은 그동안 발전과정에서 개념적 및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진보, 경험적 지식의 축적, 효율적 정책결정에 대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지식정보화, 서비스화, 인구고령화라는 세계적인 환경변화가 경제공간에 대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에 따라 경제지리학의 재발견이 이

루어졌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 Paul Krugman을 중심으로 신경경제지리학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논의된 신경경제지리학의 방법론과 경제지리학에서 논의된 신경경제지리학의 방법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와 경제지리학자의 상호 교류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21세기에 들어서 신경경제지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제학과 경제지리학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고, 그 결실의 예가 바로 앞에서 지적한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2000)의 출판과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001)의 창간이었다. 또한 사회학, 경영학분야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 지식관리, 지식창출 등 새로운 접근방법과 이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경제지리학자들과 다른 분야의 사회과학자들과의 교류가 과거에 비해 활발하고 학제간 공동의 학술지와 저서들이 출판되고 있으나 아직도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하여 학문의 융합화가 촉진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지리학계 내에서만 문화적 전환, 관계적 전화 등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는 한편(남기범, 2003; 정준호, 2006; 주성재, 2006), 지역학이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별도의 신경경제지리학 관련 문헌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 간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신경경제지리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리학적 사고를 다른 사회과학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우선 경제지리학자들이 개방적인 사고로 수학적 모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경제지리학자들이 지역학 및 경제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학관련 학회에 많이 참여하여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World Congress of RSAI, North American RSA, PRSCO, European Congress).

참고 문헌

- 구양미, 2008, “한국 고령친화산업의 행위주체 네트워크 연구: 형성과정과 구조적·공간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남기범, 2003, “서울 신산업집적지 발전의 두 유형: 동대문 시장과 서울벤처벨리의 산업집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제도화 특성에 대한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pp.45-60.
- 박삼옥, 1999, *현대경제지리학*, 서울: 아르케.
- 박삼옥, 2006, “지식정보사회의 신경계공간과 지리학 연구의 방향,” *대한지리학회지* 41(6), pp.639-656.
- 박삼옥·박상철·최성재·이정재·한경혜·이미숙·곽충실·송경언·정은진, 2007,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변화와 대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정협·김형주·손동원, 2006, *한국형 지역혁신체제의 모델과 전략: 지역혁신의 유형과 발전경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6-26*.
- 정준호, 2006, “경로의존성과 지역발전 경로: 안산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3), pp.410-430.
- 주성재, 2006,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공간적 집적 특성: 새로운 부흥의 중심지로서 서울 강남지역의 등장?,” *대한지리학회지* 41(3), pp.245-266.
- Alvstam, Claes G. and Schamp, Eike W., 2005, *Linking Industries across the World: Process of Global Networking*, Aldershot: Ashgate.
- Barnes, Trevor J., 2001, “Retheorizing economic geography: from the quantitative revolution to the “cultural tur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3), pp.546-565.
- Bathelt, Harald and Gluckler, Johannes, 2005, “Toward a relational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3(2), pp.117-144.
- Berry, B. J. L., Conkling, E. C. and Ray, D. M., 1993, *The Global Economy: Resource Use, Loc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Trad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Boschma, Ron A. and Frenken, Koen, 2006, “Why is economic geography not an evolutionary science? Towards an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6(3), pp.273-302.
- Boschma, Ron A. and Martin, Ron, 2007, “Constructing an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7(5), pp.537-548.
- Braczyk, Hans-Joachim, Cooke, Phillip and Heidenreich, Martin, 199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London: UCL Press.
- Bryson, John R., Daniels, Peter W. and Warf, Barney, 2004, *Service Worlds: People, Organizations, and Technolog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lark, G. L., Feldman, M. P. and Gertler, M. S., 2000,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ngleton, Bernard, 2007, *New Directions in Economic Geography*, Northampton, USA: Edward Elgar.
- Fujita, M., Krugman, P., and Venables, A. J., 1999, *The Spatial Economy: Cities, Regions, and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 Gluckler, Johannes, 2007, “Economic geography and the evolution of network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7(5), pp.619-634.
-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A Critical Survey of Current Thought in Light of the Past*, Lancaster, PA: AAG.
- Harvey, David, 1982, *Limits to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yter, Roger, 1997, *The Dynamics of Industrial Location: the Factory, the Firm, and the Production System*, Chichester and New York: Wiley.
- Hayter, Roger and Le Heron, Richard, 2002, *Knowledge, Industry and Environment: Institutions and Innovations in Territorial Perspective*. Aldershot: Ashgate.
- Isard, Walter, 1956, *Location and Space-Economy: A General Theory Relating to Industrial Location, Market Areas, Land Use, Trade, and Urban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 Jones, Clarence F. and Darkenwald, Gordon G., 1965, *Economic Geography*, New York: The Macmillan Co.

- Krugman, Paul, 1998, "What's new about the new economic geography?,"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4, pp.7-17.
- Krugman, Paul, 2000, "Where in the world is the 'new economic geography?',", in Clark, G.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49-60.
- Laulajainen, Risto, 2003, *Financial Geography: A Banker's View*,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e Heron, Richard and Harrington, J. W. (eds.), 2005, *New Economic Spaces: New Economic Geographies*, Aldershot: Ashgate.
- Martin, Ron, 1999, "The new" "geographical turn" in economics: some critical reflectio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3, pp.65-91.
- Martin, Ron, 2003, "Institutional approaches in economic geography," in Sheppard, E. and Barnes, T. J. (eds.),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pp.77-94.
- Massey, Doreen, 1984, *Spatial Division of Labour: Social Structure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London: Methuen.
- Park, Sam Ock, 1997, "Rethinking the Pacific Rim,"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TESG)* 88(5), pp.325-438.
- Park, Sam Ock, 2003, "Economic spaces in the Pacific Rim: a paradigm shift and new dynamics," *Papers in Regional Science* 82(2), pp.223-247.
- Park, Sam Ock, 2005, "Network, embeddedness, and cluster processes of new economic spaces in Korea," in Le Heron, R. and Harrington J. W. (eds.), *New Economic Spaces: New Economic Geographies*, pp.6-14.
- Schaefer, Fred K., 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 pp.226-249.
- Scott, Allen J., 2004, "A perspective of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4(5), pp.479-499.
- Sheppard, Eric and Barnes, Trevor J., 1990, *The Capitalist Space Economy*, London: Unwin Hyman.
- Sheppard, Eric and Barnes, Trevor J., 2003,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Oxford: Blackwell.
- Smith, David, 1971, *Industrial Location: An Economic Geographical Analysis*, New York: Wiley.
- The Economist*, March 11, 1999.
- Tickell, A. and Peck, J., 1992, "Accumulation, regulation and the geographies of post-Fordism: missing links in regulationist researc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6(2), pp.190-218.
- Webber, M. and Rigby, D., 1997, *The Golden Age Illusion*, New York: Guildford Press.
- Yeung, H. W., 2003, "Practicing new economic geographies: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3(2), pp.442-462.
- 교신: 박삼옥,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Tel: 02-880-6449, E-mail: parkso@snu.ac.kr
- Correspondence: Sam Ock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llim-dong, Gwanak-gu, Seoul, 151-746, Korea, Tel: 82-2-880-6449, E-mail: parkso@snu.ac.kr
- 최초투고일 2008년 3월 5일
최종접수일 2008년 3월 14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1, No.1, 2008(8~23)

Paradigm Shifts of Economic Geography and the New Economic Geography

Sam Ock Park*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paradigm shifts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geography and to explor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mes of the New Economic Geography discussed recently. Since the 1990s the New Economic Geography has been discussed actively in the field of economics with including the concept of space to the economic theory. The New Economic Geography has also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field of economic geography with exploring new methodology and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approaches following a broad trend of “cultural turn”. Diverse themes such as innovation, environment, services, feminist, labor market, etc. has been studied along the perspectives of the New Economic Geography in the field of economic geography. It is expected that new theories and methodologies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new economic spaces can be established through active interactions between economic geographers and other social scientists such as regional science, economics, sociology, etc.

Keywords : New Economic Geography, paradigm shift, cultural turn, institutional approach, evolutionary approach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